

# 유해도서 규제제도와 출판 및 독서진흥정책

박종열 역음 「외국의 간행물 윤리제도」

출판물로 가능한 표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간행물의 윤리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될 수 있으며, 그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를 감시하고 제재하는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념의 금기가 상당부분 무너진 이제 유해도서의 정의는 어떻게 내릴 수 있으며, 그것을 규제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실장 박종열씨의 대표집필로 최근 상재된 「외국의 간행물 윤리제도」는 이같은 질문들에 대해 풍부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 대담해준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간행물) 윤리제도의 기본철학은 어른들의 세계와 청소년들의 세계를 좀 더 분명하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라는 관점 아래 편찬된 이 책은 특히 “선진제국의 상수도 문화와 하수도문화의 위험수위를 조절하는 도서·잡지·만화 등의 간행물윤리제도의 다양한 잠금장치를 면밀하게 분석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용한 시사를 던진다.

미국과 일본, 독일의 간행물 윤리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 책의 제1장 「서론」의 일부를 다음에 발췌, 소개한다.

## 정보화 사회의 원동력은 ‘독서행위’

애디슨(J. Addison)의 말처럼 “도서는 위대한 천재가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전달함으로써 인류에게 남겨놓은 유산이다.”

대체로 한 나라의 정신사와 예술사 그리고 지식사를 꿰뚫고 있는 지적 소산과 문화적 소산은 도서문화의 영향 아래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매스 미디어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출판매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도

유해도서류 규제제도는 다른 면에서

보면 독서진흥정책의 일환이다.

유해도서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서를 읽는 것을 권장하고

불량·저질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양서를 보호해주는 정책이며

책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두텁게 해 줌으로써 독서진흥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보다 더 심오하게 인류의 문화, 사회발전 및 경제발전이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출판은 전체문화를 밀받침하는 근간 문화로 불리기도 하며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발전의 하부구조로 평가되기도 한다.

비디오, TV, 라디오, 음반, CATV,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뉴미디어에 비하여 전통적인 올드 미디어인 출판은 그 중요성이 반감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회의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흔히 21세기를 정보화 사회라고 한다. 정보화사회란 일종의 ‘소프트웨어’ 사회다. 소프트웨어 사회란 한 사회를 이루는 사회구성원의 지적 능력과 문화 능력이 근간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한 사회의 지적 능력과 문화 능력의 배양임무는 어떤 대중매체가 주로 담당하는가? 두말할나위 없이 출판매체가 이를 주로 담당한다. 흔히 정보화사회를

〔표 1-1〕 선진 5개국의 출판이륙기와 경제적 이륙기 비교

	출판이륙기	경제적 이륙기
독 일	1770년	1850~1873년
프 랑 스	1800년	1830~1860년
영 국	1825년	1783~1802년
미 국	1850년	1843~1860년
일 본	1870년	1878~1900년

자료: 미노와 시게오 「출판과 개발」(안춘근 옮김, 범우사)

촉진시키기 위하여 첨단기술혁신 등 기술위주론에만 빠지기 쉬우나 그러한 기술혁신의 근거를 이루는 기술혁신에 대한 성취동기와 정신 그리고 잠재된 창의력의 개발이 도서를 비롯한 출판매체에 의하여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보화사회 달성은 마음만 급해질 뿐 쉽사리 다가오는 것은 아니다.

패전이라는 악조건속에서도 세계기술강국,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독일과 일본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기관 이용시 국민들이 가장 독서를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진 사실은 결코 우연한 예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TV나 비디오 등 영상매체 앞에서 스쳐가는 정보, 감각, 관능, 말초신경에만 느슨해져 있지 않고 적극적인 지식, 지성, 정보습득행위인 독서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해 가는 것은 정보화 사회에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상매체, 시청각매체를 감각매체라고 부르며 출판매체를 지성매체라고 호칭하기도 한다.

## 유해도서 규제책은 독서진흥정책의 일환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출판매체의 육성이나 국민독서진흥정책은 선진각국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중시되어온 정책분야다.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다루려고 하는 유해도서류 규제제도도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나라의 독서진흥정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즉 유해도서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서를 읽는 것을 권장하고 불량·저질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양서를 발간하는 출판기업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며 책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두텁게 해 줌으로써 독서

「고집있는 편집·기획인을 찾고 있습니다」

책의 해에 발맞춰 의욕적인 유아·아동도서 기획에 뜻을 둔 저희 명서원은, 오랜 편집경험으로 파릇한 아이디어를 품고 계신 편집인을 모시고자 합니다.

편집장 역할을 묵묵히 열심히 해낼 수 있는 분으로, 아동도서 및 단행본 기획에 자신의 잠재된 능력을 한껏 발휘하고픈 의욕이 있는 분이라면 좋습니다. (아동도서 편집 경험자, 외국어 가능자, 편집 책임자 경험이 있는 분, 우대합니다.)

이력서(사진 첨부)와 자기소개서 각1통, 자신이 편집한 책을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살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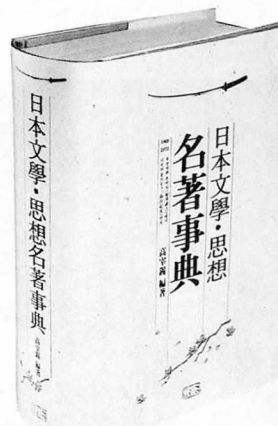
● 명서원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2동 182-20

T. 323-1177-8 FAX. 323-1179

# 책으로 그린 일본의 문학사상 지도

고재석 엮음 「日本文學·思想 名著事典」



진흥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따라서 이 책은 선진각국의 유해도서류 규제제도와 출판진흥 내지 독서 진흥제도를 연관시켜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유해도서류 규제제도와 독서진흥제도가 앞으로 가질 밀접한 연관정책과제에 던지는 정책적 함축성을 찾아보고자 한다.

우리는 흔히 독일의 청소년 보호와 유해도서류 규제정책 등이 모범적으로 되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나아가 독일의 전후의 경제기적, 통일을 부러워하기도 한다. 예를들면 전후 유럽각국이 노사분규로 경제정체에 빠져 온 것에 반하여 독일은 '공동결정제도' 등에 의하여 노사가 산업평화를 이룩하여 독일통일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왔는데 그러한 산업평화가 노조 매수에 의한 것도 아니며 대폭적인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의한 것도 아니었다. 즉 독일 근로자의 전후의 임금상승률은 여타제국과는 달리 자국의 노동생산성상승률을 밑도는 수준에서 노사합의하에 장기간에 걸쳐 결정되어 옴으로써 경제성장의 가속화요인이 되어왔다.

## 「출판이륙기」 선행이 독일성공의 비결

독일의 이와같은 국력과 개인복지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국민적 합의는 어떤 사회역사적 뿌리에 기인하는 것일까?

우리는 독일의 출판진흥이 경제성장면에서는 독일보다 앞서 있던 다른 선진제국보다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역사적 사실을 주목치 않을 수 없다. 일본의 출판학 연구가인 미노와 시게오교수의 분석에 의하면 연간신간서적수

증가 등을 기초개념자료로 한 '출판이륙기'와 로스토우 교수가 정의를 내린 '경제이륙기'를 선진 5개국 자료로 대비한 결과(표 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경제이륙기가 타국에 비하여 뒤늦었는 데 비하여 출판이륙기는 어느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빨랐다고 한다.

18세기 말엽의 프리드리히대왕의 중상주의적 부국강병책은 교육과 독서진흥정책 등의 뒷받침을 받아 18세기 말에 이미 소설이 해마다 300종이나 출간되고 20년간에 걸쳐 백만부나 팔리는 책이 출현하였고 각계각층 국민들의 지식욕, 교육열, 독서욕이 크게 증대되었다고 한다.

독일에서의 이러한 출판이륙기의 선행, 국민들의 '지적 자산의 본원적 축적과정'의 착실한 진행은 근현대독일발전의 초석이 되어 왔음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독일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이 바이마르공화국헌법시부터 채택되어 왔다는 점, 청소년 유해간행물 규제 연방법률이 어느 나라보다 앞서 제정·시행되어 왔다는 점 등도 독일의 이러한 출판진흥, 국민독서진흥에 대한 중시정책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 책에서 각국의 유해도서류 규제제도와 독서진흥제도가 그 나라의 정신사, 문화사의 새로운 장의 테이프를 자르는 가위의 양날이 되어 왔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역사적 배타심리와 기성세대들의 익숙함으로 인한 외면 때문에 그동안 일본문화에 대한 우리의 연구풍토는 불모지나 다름없었다. 최근 출간된 국문학자 고재석씨(동국대 강사)의 「日本文學·思想 名著事典」은 “국문학을 전공하면서 일본유학생을 중심으로 기술된 기존의 문학사에 회의”를 가진 한 소장학자의 노작임과 동시에 변변한 일본문학사 하나 번역되지 않은 우리 학계에 신선한 자극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일본 근대화에 크게 기여한 후쿠자와 유키치의 「학문의 권장」에서 시작해 노벨상 물망에 올랐던 미시마 유키오의 「豊饒の 바다」까지 일본의 문학·철학·사회·역사·과학분야를 대표하는 명저 168권의 소개와 해설로 구성된 이 책은, 1868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일본 정신사를 아우르고 있다.

명저를 매개로 일본문학과 사상의 지도를 훑어나간다는 목적에 의해 출판되었는데, 사전의 특성이 치밀한 편집체계를 요하는 만큼 1338면에 달하는 지면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배열은 발표시기 순으로 하되 맥락의 유기성을 고려해 '명치의 문학'부터 '현재'까지 모두 7장으로 크게 나눈 뒤, 속표지마다 해당시기의 간략한 연보를 실었다. 특히 작가사진·약력·본문해설·필자약력·註로 구성된 본문에는 국내에서 간행된 관련 번역서와 논문, 그리고 각종 참고도서의 서지사항을 밝혀 깊이 있는 독서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해설을 쓴 필자의 약력도 함께 실어

대상작가와 해설자의 개인적·사상적 관계를 파악해 함과 동시에 인명사전의 기능을 갖추도록 편집한 점이 돋보인다.

일본문학과 사상에 대한 이중적 심리구조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개별적 작품론에 이어 거시적 안목도 겸할 수 있도록 권말에 9개 항목의 부록을 더했는데, 「일본근대문학 평론사개설」 「근대 현대의 일본문학」을 비롯해 「일본현대문학연구 필수작가 76」 등 일본문학 전반을 조망케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글과 함께 「일본어 가나와 한글대조표」 「일본 연호 서기 대조표」도 실어 독자의 사소한 불편도 덜어주고 있다.

4천여권의 책과 1천7백여명의 저자를 다룬 방대한 분량의 이 사전을 펴낸 편저자는 후기에 “다만 이 책이 우리 손으로 썩어질 본격적 일본문학사나 사상사를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적고 있다.

깊은샘/A5신/1338면/6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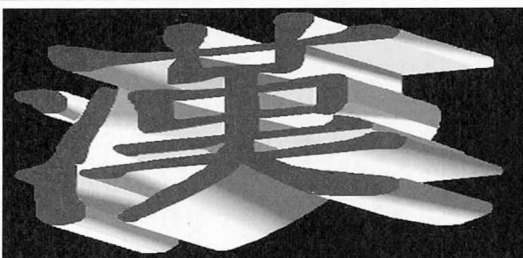


## Macintosh Desktop Publishing System

맥킨토시를 줄여서 '맥' 이라고 한다.

진정한 Full Pagenation(글자·사진·도표·그림 등 모든 요소를 통합하여 완성된 1한 페이지를 만들어 내는 것)을 구현하므로 칼과 풀(대지작업)이 필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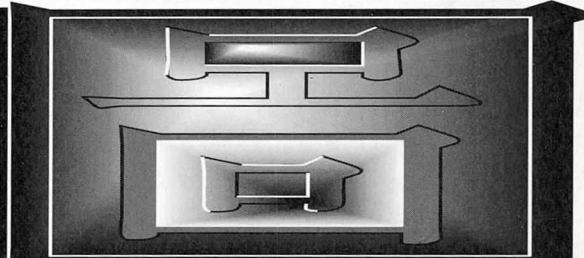
※ ECRM社의 PelBox/VR-30이 신속한 출력을 보장한다.



컴퓨터에는 약 4,500餘字의 漢字 밖에 없다. 그러나 脈漢圖에는 모든 漢字가 다 있다. 그 외에 中國簡字·日本略字·古語들이 있다. 전화/팩시 한통이면 化면용 폰트가 配達된다.

漢字는 人類精神의 寶庫로 들어가는 열쇠이다.

소리글자(입술기벼운소리)에 中毒된 現代人들의 荒廢한 精神世界를 治療할 수 있는 唯一無二한 治療劑이다.



도안·그림(그래픽)·사진들이 함께 처리된다. 따라서 많은 시간과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脈漢圖

Tel 723-1955 Fax 723-6789

중로구 경운동88 수운회관 310호

代表 琴河淵